

ExxonMobil, 시가총액 세계 1위

FT, 글로벌 500대기업 선정 ... PetroChina 2위에 삼성전자는 51위

ExxonMobil이 상장 주식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업으로 선정됐다.

파이낸셜 타임스(FT)가 5월30일 발표한 <2009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ExxonMobil은 2009년 3월31일 기준 시가총액 3365억달러로 1위를 차지해 2006년부터 4년 연속 1위를 지켰다.

중국의 PetroChina가 2년 연속 ExxonMobil에 이어 2위를 지켰고, 2008년 11위였던 월마트(Wal-Mart)가 8계단 뛰어올라 3위에 자리했다.

줄곧 1위를 지키다 2006년 ExxonMobil에 정상을 내주고 2위로 밀려난 GE(General Electric)은 PetroChina에도 밀려 3위로 떨어졌다가 2009년에는 20계단이나 추락해 23위로 주저앉았다.

국내기업 가운데는 2008년 58위였던 삼성전자가 51위로 상승했고, 포스코가 193위, 한국전력이 424위, SK텔레콤이 449위, 현대중공업이 466위에 자리했다.

일본은 토요타(Toyota)가 22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자리한 것을 비롯해 글로벌 500대 기업에 총 49사가 포함됐다.

FT에 따르면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주식시장 하락 탓에 2009년 500대 기업의 시가총액은 15조6170억 달러로 작년보다 42% 줄었다.

또 2008년 국제유가 상승으로 호황을 누린 석유기업들의 순위가 오른 반면,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은행들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6/01>